

나의 선택 🍷

도리아의 소설로서, 영화로 유명해진 "하이눈"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
주인공 보안관은 마을의 법질서를 사수하려고 합니다.
악당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.

"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.
내가 필요한 사람은 '이 일이 나의 일이다'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"

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.

"오늘로 내 나이 서른이 되었다.
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.
주님,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.
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."

그 후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.
어느 날 그녀에게 성공한 삶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

"비결은 하나뿐입니다.
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그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"

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생활과 나의 음성만을 듣는 생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.

마음의 선택에서 한 발자국 전진한 몸으로 하는 선택, 즉 나의 생애를 방향 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.

그리고 이 결단은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데서 더욱더 구체적이며 가치 있게 발전됩니다.

<인간과 인생/최효섭>

☞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